



한국 쇼 '바스켓 여왕'

中 79-73 제압...4회 연속 올림픽 출전권

아시아 여자농구선수권 결승

한국 여자농구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데 이어 아시아여자농구 선수권대회 정상에 8년만에 탈환했다.

한국은 10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정선민(18점)과 변연하(16점) 등 주전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중국을 79-73으로 제압, 예선 5경기를 포함해 7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전날 준결승에서 대만을 꺾고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일찌감치 손에 넣은 한국은 이번 승리로 1999년 일본 대회 우승 이후 8년만에 다시 패권을 되찾았다.

또 중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경쟁 팀들을 모두 물리치면서 베이징올림픽 메달 획득 희망을 더욱 밝게 했다.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석 점 차로 힘겹게 따돌린 뒤 결승에서 다시 만난 중국이었지만 한국의 우승에 대한 집념을 꺾을 수 없었다.

15군 급을 내보낸 중국을 상대로 한국은 정선민과 변연하, 박정은(6점), 진미정(7점), 김계령(12점) 등 베테랑 주전을 선발로 내세워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다.

정선민과 김계령이 골밑을 장악하고 주전들의 고른 득점에 한국은 1쿼터 종료 46초 전에는 변연하가 3점슛까지 터뜨려 20-18로 쿼터를 마쳤다.

국내 최장신 센터 하은주(14점)와 대표팀 막내 김정은(7점)은 2쿼터부터 투입돼 내외곽에서 꾸준히 점수를 보였고 정선민도 정확한 미들슛과 골밑 돌파로 득점을 올려 전반을 42-33으로 마쳤다.

기세를 올린 한국은 3쿼터 초반 변연하와 김정은이 번갈아가며 레이업슛을 성공, 쿼터 시작 2분24초만에 50-33까지 앞서 나갔다.

한국은 마지막 쿼터에서 중국 장판에게 내리 6점을 내줘 한때 64-69까지 쫓기는 신세가 됐지만 바로 김계령과 정선민이 잇따라 득점에 추격을 뿌리쳤고 중국은 연속으로 턴오버를 저지하며 무릎을 꿇었다.



한국 여자농구 김진희 첫 골 10일 오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올림픽 여자농구 예선 한국-일본전에서 한국 김진희(가운데)가 첫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이날 한국과 일본은 2-2로 비겼다. 이로써 1승1무2패를 기록한 한국은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일본이 남은 2경기를 모두 패해야만 베이징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바르셀로나 메시 '신의 손' 골 논란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20)가 1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1-0 리우프에서 열린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37라운드 에스파뇰과 홈 경기에서 0-1로 뒤지던 전반 43분 동점골을 성공시키고 있으나 그의 왼손이 공에 닿아있다. 이때문에 이 골은 아르헨티나 디에고 마라도나(47)의 골을 연상시키는 '신의 손' 논란을 일으켰고 에스파뇰 선수들 사이에서 강한 항의가 터져 나왔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로이터=연합뉴스

레알 마드리드 "1승 남았다"

프리메라리가 사라고사전 무승부

'지구방위대' 레알 마드리드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레알 마드리드는 10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2006-2007 프리메라리가 37라운드 레알 사라고사와 원정경기에서 윌트 판 니스텔로가 혼자 두 골을 넣은 데 힘입어 2-2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시즌 종료까지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 둔

레알 마드리드는 이로써 22승7무8패(승점 73)로 이날 에스파뇰과 2-2로 비긴 바르셀로나(21승10무6패·승점 73)와 동률을 이뤘지만 두 팀 간 상대전적(1승1무)에서 앞서 '살얼음판' 1위를 지켜냈다.

레알 마드리드는 18일 치를 마요르카와 최후전에서 이긴다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팀의 30번째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다.

바르셀로나에 자칭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이날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니스텔로가 활약 덕분에 가까스로 패배를 모면했다.

신영록 선제·역전골

한국, 코스타리카 3-2로 꺾고 우승

U-20 국제청소년대회

20세 이하(U-20)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강호 코스타리카를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9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U-20 국제청소년대회 코스타리카와 마지막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신영록(수원)의 활약을 앞세워 3-2 재역전을 거뒀다.

양 팀 모두 멕시코를 2-0으로 눌러 사실상 결승이었던 이날 대회에서 승리해 한국은 우승과 함께 삼금 5만 달러를 챙겼다.

한국이 경기 시작 5분 만에 골문을 열었다.

송진형(서울)의 코너킥이 상대 수비 머리 맞고 흐르자 신영록이 페널티킥 지점에서 잡아 오른발로 차 넣어 기선을 제압했다.

월드컵 본선 진출국인 코스타리카의 전력도 만만찮았다. 체격조건과 개인기가 좋은 코스타리카는

전반 35분 코너킥 찬스에서 세사르 엘리손도가 골 지역 왼쪽 모서리에서 머리로 돌려 놓아 동점을 만들었다.

한국은 후반 시작하며 송진형과 이현승(전북)을 빼고 공격수 이성재(포항)와 미드필더 정경호(경남)를 투입하면서 이현승이 제 자린 미드필더로, 주장 박주호는 중앙 수비로 자리를 바꿔 변화를 꾀했다.

하지만 후반 8분 집중력이 흔들리며 파울로 에레라를 수비 3명이 막아내지 못하며 역전골을 내졌다.

다행히 한국은 4분 뒤인 후반 12분 균형을 되찾아 왔다.

앞서 심영성(제주)의 페널티킥이 골키퍼 알폰소 케사다에게 막힌 뒤 이어진 코너킥에서 김동석이 올린 볼을 기성용(서울)이 골 지역 오른쪽에서 헤딩으로 꽂아 넣었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후반 21분 신영록이 아크 왼쪽에서 상대 골키퍼가 전진한 것을 보고 오른발로 밀어넣어 짜릿한 재역전에 성공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아마복싱 '숨주먹'

쇼선수권서 금 1개도 없어

한국 아마추어 복싱이 작년 도하아시아게임에 이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조차 금메달 수확에 실패해 2008년 베이징올림픽 출전 티켓이 걸린 세계선수권대회(10월, 미국 시카고)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3일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벌어진 제24회 아시아복싱선수권대회에서 라

이트헤비급(81kg급) 송학성(28·남원시청)과 라이트급(60kg급) 김정원(23·원주시청)이 각각 동메달을 따는데 그쳤다고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이 10일 밝혔다.

도하아시아게임 은메달리스트 송학성은 9일 열린 준결승전에서 아토예브 아보스(우즈베키스탄)에게 7-22로 판정패했고, 김정원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송국(26·북한)에게 판정패하는 바람에 각각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에빙 프랑스오픈테니스 3연패

쥬스틴 에빙(세계랭킹 1위·벨기에)이 총 삼금 192억원이 걸린 프랑스오픈테니스 3연패를 달성했다.

에빙은 10일 밤 파리 외곽 몰랑 가로 클레이코트에서 벌어진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르비아의 신성 안나 이바노비치(7위)를 2-0(6-1 6-2)으로 완파하고 2003년, 2005~2006년에 이어 통산 4번째로 이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 대회를 3연패 하기는 모니카 셀레스(1990~1992년·미국)에 이어 15년 만이다.



- 11일(월)
- ▲메이저리그(시카고C-애들랜트)(08 : 55·Xports)
 - ▲NBA 파이널 2차전(클리블랜드-샌안토니오)(10 : 00·MBC ESPN)
 - ▲전국휠체어농구대회 결승전(14 : 10·KBS1)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니혼햄)(17 : 50·SBS스포츠)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강도와 사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 성인에게는 개인의 정서적 안정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특강 개설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B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 ★교육비 :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 ★교육장소 : 롯데백화점점 제1B/D 3층
-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O신기한 1일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중등학년, 태권도도장, 각·예능학원, O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야유회, O어떤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제1회 시험 10월 14일 확정 -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취업 가능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 부기관이나 사고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교통사고조사 전문가를 말한다. WTO가 일국 중 교통사고의 사망률이 각각 1.29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정부는 당사자간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진교통사고조사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

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가가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규고용창출에 대해 업계와 당국의 관심은 매우 크다. (참고: 사고발생 약21만건, 사상자 약34만명, 의외신경분쟁 매년 수천건씩 증가, 이상 2005년 경찰청 발표)

시험과목으로는 교통관련법규 등

제1회 시험 국가공인자격 평균 60점 이상 합격

법적 공신력 부여, 조사 자료 증거 채택,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취업가능

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꿔서 하거나 사고현상에 도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환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사

4과목 객관식과 실무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학력·경력·경력 상관 없이 자격에 마땅한 수험료교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응시자를 위한 교육원의 2내재자료와 특별교육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국가공인 제1회라는 시험특성까지 감안하면 시험 첫해인 올해 유래 없이 많은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탄생될 전망이다.

상담문의 / (062)528-7788

- 자격인증기관: 경찰청
- 시험주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자료제공: 교통사고감정교육원

영어 자동기억시스템!

세계최초 특허출원!! TV나 PC Monitor에 연결, 언제나 쉽고 빠르게~

10년 영어공부 1년이면 OK!

- 기억하기 싫어도 자동으로 기억시켜주는 기적의 영어학습방법 AMS로 단축된 영어의 세계를 만나다!
- 학원이나 학습지보다 10배 이상 빠른 획기적인방법
- 특목고 조기 준비생, 각종 영어경시대회패러너 선형학습을 원하는 학생의 최적코스

[성공사례 | 퍼펙트 AMS]

◆은상수상작 학생 조소현 (13세, 00초등학교 6학년 인턴)

"AMS! 나의 목적 달성 도우미"

안녕하세요? 저는 조소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6학년이 되는데요, 처음엔, "그냥 기계였지"라는 생각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건성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는 학원(영어) Quiz 시험 성적이 눈에 띄게 확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길로 학원을 중지하고 AMS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학교재엔 영어뿐만 아니라, 일상 상·사조의 기능이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고, 각종 영어 능력시험 등은 숙련말로 거저먹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공인 말하기 능력시험인 ESPT에서 47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은상수상작 학생 신지영 (16세, 00중학교 3학년 경기도)

"영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크나큰 행운 AMS"

AMS는 짧은 시간에 비해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배운 AMS 과정은 지금도 다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으며, AMS를 배우기 전보다 발음이 훨씬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시간에 영어문장을 읽으면 친구들이 저보고 영어 발음이 좋고, 영어를 잘 읽고 이해한다고 부러워 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또한 좋아 할 수 있는 말씀까지 들어있어 저의 부녀는 매일 말씀 틀어 놓으며 영어공부를 합니다. AMS를 열심히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친구들이 AMS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어학교재인 만큼 빠르게 홍보는 되겠지만... 좋은 영어 공부법은 서로 공유해야하니까요. 지금도 제가 우연히 AMS를 발견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AMS의 활용분야

각 가정, 모든 학생 필수 - 유치원, 초·중·고·대학생, 직장인, 주부, 일반등 전과제 단계별·수준별·영역별 8000개의 콘텐츠로 완벽구성

(주)AMS교육

대표 전화 1600-0596